

2018 김중업박물관 건축학교_저학년 3모듬 후기

안녕하세요! 저는 김중업박물관 건축학교 저학년 3모듬 선생인 여효빈 입니다. 프로그램부터 말씀 드리자면 이번 2회차는 '공간구성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뺨업'이라는 스티로폼 재료와 이수시개를 활용하여 도형의 모듈을 만든 다음 그 모듈을 연결하여 공간을 만드는 활동입니다. 만들기 전에 3모듬 아이들이 어떤 형태를 만들고 싶은지에 대해 스케치를 하고 스터디 과정을 거쳐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보니는 토끼, 아영이는 높은 타워, 현서는 고양이, 지온이는 굴뚝, 진영이는 식물원, 지호는 도마뱀 등의 모양을 스케치 했습니다. 다행히도 친구들이 하고 싶어하는 분류가 크게 건물과 동물로 나뉘어 저서 수월하고 협동심 있게 만들기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스케치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공간모형만들기 스터디에 들어갔습니다. 이 스터디를 통하여 친구들이 어떻게 만드는건지 구조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잘 만들고 정교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저도 더 열심히 도와주려고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스터디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공간구성 만들기에도 도입했습니다! 지온이와 진영이는 제가 말하기도 전에 둘이 먼저 협동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굴뚝을 만드는 지온이, 피라미드 형식으로 식물원을 만드는 진영이는 자연스럽게 둘이 대화하다가 굴뚝이 있는 식물원을 컨셉으로 협동하여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지호는 도마뱀을 만드는데 상대적으로 크고 형태가 어려워 포기하려 하려는데 도마뱀 꼬리와 다리를 너무 잘 만들어 포기하지말고 계속 해보라고 응원 했습니다. 그러더니 고양이를 만드는 현서와 함께 협동하여 고양이 꼬리에 도마뱀 꼬리를 이어 창의적인 동물 모형을 완성했습니다. 토끼를 만드는 보니는 토끼 얼굴을 입체적으로 만들기 힘들어했지만 제

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줬더니 금방 방법을 터득하여 토끼 얼굴을 완성하였고, 아영이는 높고 큰 타워를 만들어 식물원으로 가는 통로를 만들어 창의적인 모델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3모듬 친구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모델의 이름까지 지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식물원 파크'로 창의적인 모델로 탄생한 동물들이 식물원으로 가는 모양을 형상화 했습니다. 선생의 입장으로 솔직히 말하자면, 협동심이 필요한 프로젝트였기에 혹여나 애들이 싸우거나 의견 충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속으로 내심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제 걱정과 달리 애들이 너무 서로 협동도 잘해주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려 하며 이 프로젝트를 주체적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예뻐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주저없이 질문들도 하며 서로 싸우지 않고 '우리 이거는 어떻게 연결할까?', '내가 이 부분 할 테니 너가 이 부분 할래?' 라며 프로젝트를 이끌어 갔습니다. 6모듬 중에서 저희 모듬인 3모듬의 협동심이 제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3모듬 친구들은 똑똑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아는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3번의 건축 학교도 3모듬 친구들 덕분에 기대가 됩니다!

